

## 사명 (사도행전 16:11-15)

다음 주는 20주년을 두고 메시지를 받는 주간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날과 함께 항상 마음에 담고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 예배이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예배에 마음을 쏟기 바란다.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혹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늘 걱정이다. 전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 안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 미국 교회를 보고 무너져간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세상적인 사상같은 것이 가미된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차츰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현지인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을 때 백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다섯 개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교회를 다섯 개 다니면 놀러다니는거지 교회다니는것인가? 자기 기분대로 이교회 갔다가 저교회 갔다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담은 교회도 없고 사명도 없고 메시지도 없다는 말 아닌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절대 그런식으로 하지 않는다. TV로 예배 드리면 100교회도 다닐수 있다. 오늘 나는 너무 힘이 들고 아파서 도저히 안되겠다,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예사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좋다. 기도가지고 실험해보면 된다. 때때로 살다보면 힘들 때가 있다.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안하고 자면 편안한 잠 안된다. 감기 들어서 너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면 감기 낫는다. 우리는 사명자이고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고 미국에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하고 정복하고 증인되기 바란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명이다. 사명은 때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그냥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도 될 수 있다.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 언약이다. 절대 언약이기에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을 따라 살면 성공하는 것이다.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안하면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인생이 방황할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많이 있다.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 그런데 왜 골탕을 먹고 어려움을 주겠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 나면 정복한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25년 무응답이었다. 이 절대 계획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맞아야 한다.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다.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하여 조용히 이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약 아닌가? 하루에 두세번 누리면 분명히 증거 일어난다. 정시기도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복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답이다. 과거에 무엇이 어떻게 있었던 관계 없다. 복음을 답으로 잡으면 역사 일어난다. 주님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하였다.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이제 기도를 바꾸라고 하였다. 기도 제목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때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33

절에 이미 말해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사단이 일으킨 근본문제 세가지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 언약 누리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물고기 물 떠났는데 그리스도 누리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물고기 물 떠나도 안 죽는 것이다. 이 언약 있으면.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한다. 당연히 돌아갈 길도 나온다. 그리고 이 언약 누리면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해방을 누릴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도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된다. 우리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다. 이 주신 천국 열쇠는 땅에서도 열쇠가 된다. 그래서 땅에서 니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하였다. 니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이것은 땅에서도 열쇠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상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내 인생에 대한 열쇠를 가졌다. 그리스도. 뿐만 아니다. 내 이웃의 인생의 열쇠도 내가 가졌다. 이 열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언약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틀림이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다.

### 1. 사명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꿈에 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는 말씀을 받고 빌립보로 갔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이 성에 당도해서 수일을 유했다고 하였다. 몇일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기도했다는 말이다. 사도바울이 받은 메시지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언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항상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도 이 복음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나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 루디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13절 루디아를 만날때도 전도하려고 간게 아니라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가다가 만났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는 준비된 제자였다. 이 준비된 제자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바울의 말, 곧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강권해서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그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가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문이 된 것이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만일 미국에 이 시대적인 참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다.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하는 제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사명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다. 어렵거나 넘어졌을 때에도 일어날 이유가 된다. 그것이 사명이다. 내가 지금 이럴 일이 아니지. 내가 사명을 두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사명자이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정복할수 있다. 뛰어 넘을수 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는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항상 이 생각이 중심에 있어서 다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사명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행해 놓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아니

다. 사명이 있는 자는 어려워도 해놓고 본다. 어렵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어려움이 해결되면 후회하게 된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충격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 때에 평생의 사명을 함께 받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잊겠는가? 그 마음,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꽂 차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 하나로 인생 전체가 단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 그냥 믿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마틴루터는 시대적인 사람이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 주위에서 함께 마틴루터를 도왔던 중직자들도 시대적인 사명을 받았다. 멋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결심했다.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즉시로 자기 집에 강권하게 있게 했다. 그리고 그 날 온 가족이 이 복음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유럽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처음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 빌립보교회와 빌립보 지역의 전도운동에 주도적인 중직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 말고는 사실은 의미 없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명을 언약으로 잡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꺾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구체적인 무기가 된다. 근본적인 무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은 구체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사명으로 살면 사단의 모든 역사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정복, 승리의 인생,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명의 힘이다. 사명은 일이 아니다. 짐은 더더욱 아니다.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무기이다.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일, 육신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니가 이방인이냐? 그런 기도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셨다.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 나는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내 생각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내 중심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야 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다 끝나는데 사단이 안되게 잡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은혜받고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이다.

## 2.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은 응답 받는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바울에게 붙이셨다. 바울은 한 것 없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답안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줄 믿는다. 제자는 전도 뿐 아니라 사업에도 필요하다. 사업을 크게 하려면 나하고 함께 갈 제자가 필요하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답이 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어느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더 깊어지는 것이다. 더 깊이 통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문도 열어주신다. 왜냐하면 증인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 하고 메시지도 듣는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뿐이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축복하지 않을수 없다. 내가 여기에 증인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안 할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오히려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방법이고 답이다. 왜 말이 많냐면 이것을 안해서 말이 많은 것이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기도도 말을 많이 할게 없다. 이것이 안되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말이 많고 기도도 말이 많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답나고 이 생각에 답 나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 여기에 들어오면 어려움이 없다. 같은 어려움이 계속 와도 어려움으로 안 보인다. 오히려 축복으로 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한 개 뿐이다. 생각을 바꾸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한다. 안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 뿐이다. 성경의 많은 결론중에 대표적인 결론이다. 증인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문을 열어주신다. 산업과 가정과 건강, 많은 곳에서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오직 증인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증인이 되려고 하니가 다 주시는 것이다. 여러말이 필요 없다. 증인 되어야 한다. 끝이다. 그러면. 기도도 말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축복 받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데 내 마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병이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다.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답 난 사람이었고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연히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답을 얻어야 한다. 기도제목은 하나 뿐이다. 하나님 나도 답을 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같지 않은 이것을 처리해주세요. 대부분 그냥 교회 다닌다. 기도를 해도 이것저것 막 하고 있다. 딱 한 개다. 이것 기도하라. 끝이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답 나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이 무너지는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열쇠인가? 확인된 자는 증인된다. 바울은 또한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수일을 요하면서 기도했다. 루디아를 만나는 그날도 기도하려 가다가 만났다. 사도바울의 특징은 첫째, 정확한 복음이다. 둘째, 깊은 기도, 그리고 항상 제자. 이것이 특징이다. 복음 다음은 기도이다. 이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 깊은 기도의 축복이 있다면 진짜 다 되는 것이다. 깊이 복음을 누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경제도 건강도 미국도 남미도 다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 답나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정복되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육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죽은 부분은 되는데, 육신 문제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다. 육신 문제도 정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답나고 세계 복음화 증인 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것 약속한대로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내 생각이 치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전쟁을 붙여야 한다. 답은 이거 뿐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의 약속이다. 루디아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바울은 한 거 없다. 전도 제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그렇다. 단지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길 수도 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고 모세 40년 걸렸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축복된 이유가 있었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온다. 길면 길수록 거기에 더 큰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언약되기를 바란다. 정말 사명 가지고 인생 정복하고 미국 남미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